

|  
 글. 조인숙\_ Cho, In-souk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 삶이 육신의 죽음과 만나는 공간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5주년에 부처

Beyond the Afterlife, Into the Present  
 -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Offer  
 Spaces for Generations Past and Present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및 근교의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2014년 등재 5주년을 맞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사진 및 UCC공모전, '세계유산 조선왕릉 주간' 선포,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하는 포럼 및 효(孝)와 휴(休), 조선왕릉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문화제를 지난 6월 22~30일 왕릉과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열었다.

등재 당시 세계유산적 가치로 특히 부각되었던 것은 조선왕릉이 조선시대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자연관을 보여주고,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왕실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살아있는 전통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조선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가운데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평가되었다: 1)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고 특출한 증거(기준3)로서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 문화권 왕릉들과 다른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葬墓)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과; 2)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기준4)로서 "500년 이상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구성과 건축물과 석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난다는 점"이며; 3)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측면(기준6)에서 "국가 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의 신위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능침-정자각에서

### 2) 한국의 왕릉과 조선왕릉 -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

기원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영(造營)되었던 한국의 왕릉은 단순한 유적이거나 탐방지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왕릉 조영(造營)의 건축 및 조경양식은 시대별 한국의 정신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까지 보존되어 전해지는 조선왕실의 제례의식은 관련 유물 및 풍부한 기록물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보여주는 보고(寶庫)다. 동서고금을 통

해 왕릉의 모습은 유사점이 있다. 대개 흙을 높이 덮어 언덕처럼 만들었다. 이 점에서 용어도 정착된 듯 하다. 한자어 권에서 통용되는 “릉(陵)”이란 언덕을 의미한다. 구미어 권에서 통용되는 라틴어 “tumulus”도 주검을 묻은 무덤을 돌과 흙으로 덮는 언덕을 의미한다.

무덤을 일컫는 용어를 보자면 한국의 삼국시대(BCE 1C-CE 10C) 왕과 왕비의 무덤은 령(陵)이라 하고, 그 외의 무덤은 묘(墓)라 한다. 출토유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짐작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총(塚)이라 하고, 능이나 묘라 할 수도 없고 총이라 부를 수도 없는 기타 옛 무덤을 고분(古墳)이라 부른다. 고려시대(10~14세기) 왕릉은 조선시대 능침제도에 직접 영향을 주어 매우 중요하나 아직은 현장탐방이 쉽지 않아 언급하기 조심스러워서 생략한다.

조선시대(14세기 말~20세기 초) 왕실관련 무덤은 왕실의 위계에 따라 능, 원, 묘로 분류된다: 1) 능(陵)은 추존왕, 추존왕비를 포함한 왕과 왕비의 무덤이고; 2) 원(園)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그리고 왕의 사친(私親: 종실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임금의 생가 어버이)의 무덤을 말한다; 3) 묘(墓)는 나머지 왕족, 즉 왕의 정궁의 아들, 딸인 대군과 공주, 왕의 서자, 서녀인 군과 옹주, 왕의 첩인 후궁, 귀인 등의 무덤을 일컫는다.

즉, 조선왕릉(朝鮮王陵)이란 조선시대(1392~1910) 추존왕을 포함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한다. 조선왕릉 중 현재 개성특급시에 있는 2기, 제릉(齊陵, 태조왕비 신의왕후의 능)과 후릉(厚陵, 정종과 정안왕후 김씨의 능)을 제외하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서울 및 근교의 왕릉은 40기, 원은 13기이다. 이들 중 단종의 능인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장릉(莊陵) 및 경기도 여주에 소재하는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의 능인 영릉(英陵) 그리고 효종의 능인녕릉(寧陵)외의 왕릉은 서울, 즉 조선시대 도읍지 한양에서 약 40km 이내에 있다. 이는 조선시대 축척으로는 100리에 해당하는 거리다. 이러한 도성과 가까운 위치라는 용이한 접근성은 왕위를 이어받은 후 선왕의 묘역을 참배하기 쉽게 하고자 함으로 이해된다.

### 3) 죽은 자와 산 자의 교감

한국은 예로부터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져왔고, 이는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택했던 조선시대에 더욱 공고해졌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무덤이란 조상이 머무는 구체적이고도 각별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에 왕실은 최고 통치자인 왕의 무덤을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 제사 지냄으로써 백성에 모범을 보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얻고

자 했다. 그러므로 죽은 왕에게 바치는 존경과 기억이 국장의 모든 절차와 왕릉 조영의 실제 및 추후 지속되는 산릉제례 등을 구현함으로써 왕권 강화 및 성리학이라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조선의 국장**은 왕이 승하한 후 3년에 걸쳐 총 60단계가 넘는 절차를 밟아 국상의 예를 맺는 것으로 진행된다. 왕이 승하하면 온 궁궐은 임금님을 잃은 슬픔에 잠기지만, 그와 동시에 왕의 장례인 국장(國葬)을 치르기 위해 일사분란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왕실을 중심으로 한 대소 신하들은 우선 임시 기관을 설치하고, 각 기관에 관리들을 임명하여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승하한 왕의 옥체를 모신 빈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빈전도감**, 국장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문서들을 총괄 제작하는 **국장도감**, 왕의 능을 조성하는 일을 맡은 기관인 **산릉도감**의 3도감이다.

조선 왕조의 제례는 위로는 왕가에서부터 일반 사대부 및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실천한 의례였다. 무덤에서 치르는 제례는 사람이 그 자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식이다. 그 가운데도 왕릉의 제례는 왕의 존재가 단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먼 조상 임금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임을 재인식시키는 행위였다.

이에 산릉제례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한 제사 의식의 하나로, 직접 능에 행차하여 치르는 제례를 뜻한다.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반드시 태조 건원릉 이하 부왕 및 모후의 산릉에 참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배릉(拜陵)이라고 하였다. 배릉 의식은 국가적 의례로서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거행한다는 점에서 의례적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 산릉제례는 600년을 이어온 왕실 제례이며 앞으로도 이어질 제례로, 지금은 전주 이씨 종약원에서 종묘대제와 아울러 주관하고 있다.

## 2. 조선왕릉의 조영(造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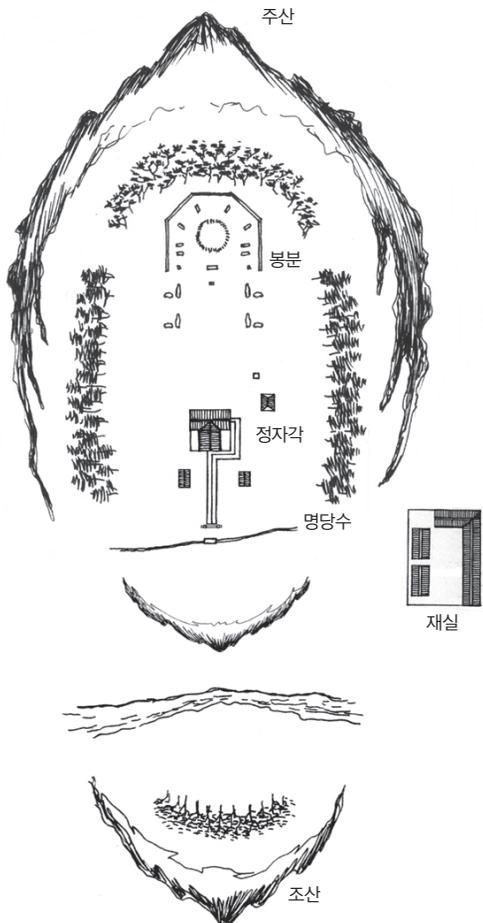
### 1) 왕릉의 입지와 풍수

조선왕릉의 입지는 왕릉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자연의 지세를 존중하는 자연조화적인 조영 기법을 따랐다. 즉, 주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거기에 구조물을 맞춰나가는 자연친화적 방식을 고수함

으로써 풍수이론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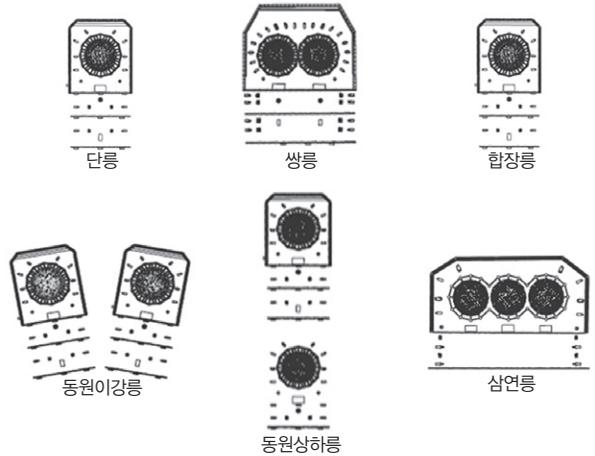
조선왕릉의 지리적 분포와 입지적 특징은 도성(都城)인 한양으로부터의 40km 이내라는 거리, 도성의 북동쪽과 북서쪽이 다수라는 왕릉의 위치, 그리고 주변 능과의 거리는 약 300m라는 점, 대부분 남향인 좌향, 주변 산세 등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함 등이다.

또한 풍수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능의 위치를 결정함에 바람, 물, 불, 나무 및 흙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화가 생길 염려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뒤로 주산이 펼쳐지는 가운데 산허리에 봉분이 위치해야 했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라고 일컬어지는 산맥이 좌우를 감싸며, 봉분 맞은편에 마주하는 산맥이 있어야 훌륭한 자리라고 여겼다. 정해진 입지의 어느 방향에 봉분이 위치할 것인가, 또 어느 방향을 바라보도록 조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풍수적인 형국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조선왕릉의 입지와 풍수 /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

이렇듯 왕릉 자체를 자연 환경의 일부로 여기는 풍수사상에 의거하여 자연의 지세와 규모에 따라 조선왕릉에는 다양한 봉분의 형태가 남아있다. 이는: 왕과 왕비의 무덤을 각각 단독으로 조성한 **단릉**; 평평하게 조성한 언덕에 하나의 곡장을 둘러 왕과 왕비의 봉분을 쌍분으로 만든 **쌍릉**;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합장릉**; 하나의 정자각 뒤로 다른 줄기의 언덕에 별도의 봉분과 상설을 배치한 **동원이강릉**; 왕과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에 위아래로 조성된 **동원상하릉**; 한 언덕에 왕과 왕비 그리고 계비의 봉분을 나란히 배치하고 곡장을 두른 **삼연릉**; 왕과 왕비 그리고 계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동봉삼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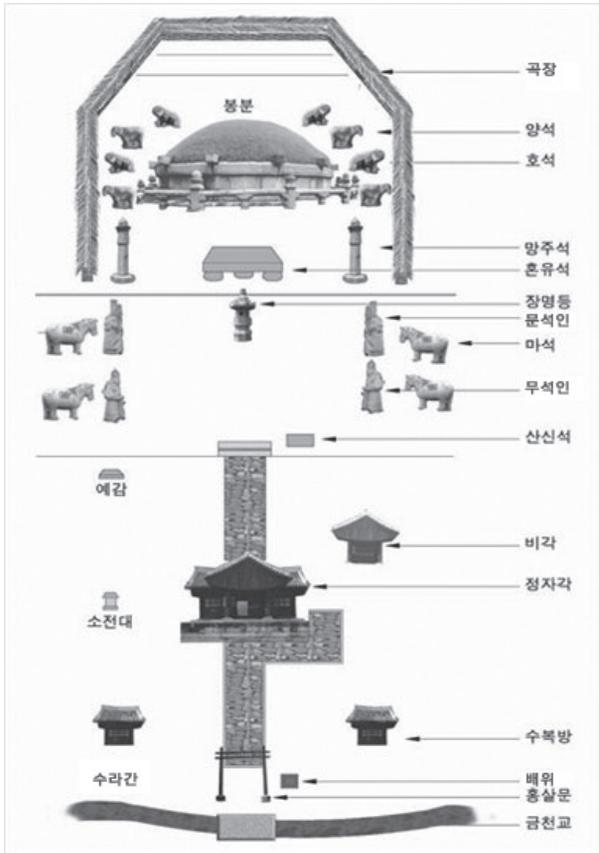
조선왕릉 봉분의 형태 /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

## 2) 왕릉의 공간구성: 진입공간-제향공간-능침공간

### (1) 진입공간-능역의 시작

진입공간(進入空間)은 왕릉의 영역이 시작되는 곳으로, 대개 홍살문으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돌다리 금천교(禁川橋)까지를 일컫는다. 본래 '금천(禁川)'은 명당수로 이곳을 건너면 특별한 영역, 즉 선왕의 넋이 머무는 신성한 영역임을 상징한다.

진입공간에는 제향 준비를 위한 재실이 있다. 이곳에 능참봉 즉, 왕릉 관리자가 거처한다. 왕릉이 군집되어 있을 경우 각 능역마다 있는 홍살문과는 별도로 외홍살문을 만들어 전체가 왕릉의 영역임을 표시하기도 한다. 진입공간은 능침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을 울창하게 식재하고 연못을 조성했다. 이는 풍수적 비보이기도 하고 참배자의 휴식이나 능역의 수리·관리 및 산불 방지 등을 위함이다.



조선왕릉의 공간구성(진입공간-제향공간-능침공간) / 출처 :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

## (2) 제향공간-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

제향공간(祭享空間)은 금천교에서 홍살문을 지나 신로를 거쳐 정자각까지를 말한다.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제향공간은 제례의 거행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공간이다. 홍살문(紅箭門)은 신성한 지역의 시작임을 알리는 문으로, 제향의식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정자각(丁字閣)은 제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홍살문 옆에는 박석(薄石)을 깔 판위(版位)가 있어 제주는 능주를 향해 이곳에서 절을 하고 제례를 시작한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는 박석을 깔 긴 돌길이 있다. 정자각으로 통하는 중앙 축선을 따라 난 넓은 길은 선왕의 혼령이 이용하는 길이라 하여 신로(神路)라 하고, 그 옆의 낮고 좁은 길은 제주인 왕이 사용하므로 어로(御路)라 한다. 다른 왕릉과는 달리 대한제국 황제의 능인 홍릉(洪陵)과 유릉(裕陵)은 신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로가 있는 3로로 구성되어 있다.

정자각 뒤 서쪽에는 축문을 소각시키는 시설물인 예감이 있다. 이는 망료위(望燎位)라고도 한다. 초기 왕릉인 건원릉이나 현릉에



명종의 강릉 제향공간 정자각



명종의 강릉 진입공간 금천교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홍살문(판위)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홍살문-정자각



명종의 강릉 홍살문



명종의 강릉 신로 및 어로

는 예감과 비슷한 기능의 소전대(燒錢臺)가 함께 있기도 한다. 그리고 정자각 뒤 동북쪽에는 산을 주관하는 신에게 예를 올리는 자리로 장방형의 산신석이 있다. 이는 비록 죽은 몸이지만 인간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에 대해 산의 주신(主神)에게 감사하는 예를 표하는 것이다.

**(3) 능침공간 - 죽은 자의 공간**

능침공간(陵寢空間)은 정자각 뒤부터 봉분 및 곡장(曲牆)을 넘어 산봉우리까지이며, 왕릉의 핵심 공간이다. 봉분의 좌우와 뒷면은 곡장이라는 돌담으로 에워싸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빽빽히 심어 다시 전체 영역을 에워싸고 있다.

봉분은 반구(半球)의 모양이며 떼로 덮여있다. 조선시대 묘제에 의하면 '봉분의 직경은 약 18m, 높이는 약 4m'로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후대로 갈수록 줄어들어 평균 직경 약 11m가 된다.



중종계비 문정왕후의 태릉 능침



명종-인순왕후의 강릉 능침

능침공간은 봉분을 향해 상계-중계-하계의 3단 구성을 하고 있다.

상계(上階) 또는 초계라고도 하는 상단에는 중심에 흙을 반구형으로 쌓아 올린 봉분이 놓이며, 봉분의 아랫부분에는 12각으로 조성된 병풍석을 둘러 봉분을 장식함과 동시에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바깥을 난간석으로 둘러 다시 한 번 에워싼다. 난간석 바깥으로는 두 쌍 혹은 네 쌍의 석호(돌 호랑이)와 석양(돌로 만든 양)들이 봉분을 뒤로 하고 머리는 밖을 향해 수호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은 다시 곡장(曲牆)이 이 모든 구조물을 에워싸고 있어 풍수지리의 기본인 바람을 막고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이 있고, 그 좌우에는 기둥 모양의 망주석이 서 있다.

중계(中階)의 가운데에는 8각 혹은 4각의 장명등이 있어 상징적으로 불을 밝히고, 그 좌우에 문석인(文石人: 돌로 만든 문인) 1쌍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문석인의 뒤나 옆에 석마(돌로 만든 말)가 한 필씩 놓여 있다. 말의 머리는 중앙을 향해 마주하고 있다.

하계(下階)에는 무석인(武石人: 돌로 만든 무인) 1쌍과 말 1쌍이 놓여 있다. 문석인을 무석인보다 한 단 높게 배치한 석물배치에서도 조선시대 숭문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영조의 원릉부터는 중계와 하계의 구분이 없어진 점으로 미루어, 조선후기에는 무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조선왕릉의 석물 - 의물, 유물 등의 미학적 특징과 예술적 가치**

조선왕릉에는 다양한 의식용 석물들이 있다. 특히 능침공간에 집중되어 있는 화강석의 인물상과 동물상 및 봉분의 돌레석, 혼유석 등 무덤주인의 넋을 위한 석물들은 능실을 보호하고 능침을 영원한 사후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라 여겨진다. 이는 왕릉으로서의 장엄함을 강조하고 주변 경관과 조형적으로도 조화를 도모하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40개소 50자리에 1,300여 점의 조각이 끊임없이 조성되었고 대부분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왕릉에는 하나의 철학적 개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상이 혼합된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석물의 구성과 장식을 통해 잘 나타나며 유·불·선의 조화를 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문석인과 무석인 배치에서 문인을 무인보다 높은 위계에 놓은 숭문사상은 성리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상과 인물상은 남성을 상징한다. 무(武)와 문(文), 남(男)과 여(女)를 구분했던 개념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다만 문무 간에는 상하구별이지만 남녀는 유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조선시대는 성리학 중심으로 통치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불교적 덕목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왕릉 조영 시 상당한 석물들에 부조 등으로 표현되었다. 장명등이나 연잎 장식 및 영탁과 영저 등의 조각이 좋은 예다. 이는 능침공간의 청정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교의 내세관을 염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석양과 석호의 교차 배치는 음양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영탁의 가운데 부분에 태극, 병풍석에 12지신상을 표현한 점, 구름 문양을 반복적으로 새겨 넣은 것들은 도교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과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했던 사상들이 한 가지에만 천착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생전의 공간이나 사후세계에 조형으로 표현된 석물들은 조선시대 미학적 특징을 간직할 뿐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높은 유물이라고 판단된다.

### 3. 연속유산으로서의 조선왕릉에 대한 제언

한국의 조선시대 왕실관련 세계유산 중 창덕궁과 그 후원(1997년 등재), 종묘(1995년 등재) 및 이 글에 서술한 조선왕릉(2009년 등재)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궁(宮)은 왕과 왕비의 살아 생전의 집이고, 종묘(宗廟)는 하늘로 올라간 영혼의 위패를 모시고 제례를 통해 교감하는 혼(魂)의 집이며, 왕릉은 땅 속에 묻혀 음덕을 베푸는 육신에게 제례를 지내므로 만나는 백(魄)의 집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들이 등재유산이 된 배경에는 각 공간의 조영에 공통적인 개념이 내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이고; 둘째, 주 건축물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셋째, 음양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다. 즉, 다시 표현하면, 생전의 집이나 사후 거소의 위치를 정할 때 풍수이론에 입각하여 가장 적합한 자연환경을 찾아서 자연에 의지해서 조영을 했다는 점; 주 건물 또는 봉분이 마당으로 에워싸이고 그것이 또 담으로 둘러싸인다는 점; 그리고 제례를 통해 혼백이 만나고 삶과 죽음이 만난다는 점이다.

이런 개념들을 가진 궁-종묘-왕릉을 각각의 유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연속유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들을 통해 한국 고유의 유산관리 기준 등이

정립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圖



창덕궁 인정전



종묘 정전



왕릉(쌍릉)



창덕궁 진입공간 금천교

사진 : 조인숙

이 글은 필자가 <KOREA August 2014 VOL.10 NO.8>의 Cover story 「Beyond the Afterlife, Into the Present」(4~12쪽)의 집필을 위해 작성한 한글 원고이며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2007)' 및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